

전략시장연구실

박진우 수석연구원 02-6000-5188, jinwoo84@kita.net
이은미 수석연구원 02-6000-5179, eunmilee@kita.net
유승진 연구원 02-6000-5455, esjay@kita.net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iit.kita.net

유라시아의 관문, '몽골'을 통(通)하라!

몽골은 광물매장량 기준 세계 10위의 자원부국이며,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의 교통과 물류 요충지로 잘 알려져 있다. 몽골은 1990년 시장경제 도입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어갔으나, 최근 중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경제성장 둔화와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2015년 경제성장률은 6년 내 최저치인 2.4%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향후 오유 톨고이(Oyu Tolgoi) 금·구리광산 개발이 본격화되면 장기적으로는 GDP의 1/3에 달하는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몽골의 수출은 47억 달러로 대부분 광산물 등 원자재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입은 38억 달러로 기계 및 부품, 건설자재, 식음료 등 다양하다. 한·몽골 교역은 2015년 2억 9,2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몽골은 한국으로부터 주로 자동차 및 기호식품 등을 수입하고 구리 등 광물 자원을 수출하고 있다. 한국과 몽골은 1990년 수교 이래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 주도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양국간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최근 몽골의 도시화율 증가에 따른 주택, 전력, 통신 인프라 등 관련 산업의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류콘텐츠 확산으로 한류를 접목한 소비재와 서비스산업의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01. 몽골의 경제 동향

- ◎ 몽골은 북쪽으로 러시아, 남쪽으로 중국과 접경하는 지정학적 이점을 지닌 유라시아·중앙아시아의 핵심 국가
 - 몽골은 유라시아 교통망의 동서, 남북 교차점을 모두 차지하고 있어 유라시아 경제협력의 전략적 요충지로 꼽힘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신동방정책',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각국의 유라시아 경제협력 확대계획에 포함되며 주요 국가들이 앞다투어 몽골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
 - 향후 몽골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할 도로, 철도, 가스관, 에너지망, 석유 운송의 중심축으로 떠오를 전망
 - 몽골은 세계 10대 광물자원 부국으로 석탄, 금, 구리 등 80여 종의 유용광물을 보유
 - 에너지와 광물 자원 협력 외에도 교통·물류 인프라, 건설·플랜트, 농·목축업 및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기회 존재

◎ 2015년 몽골 경제성장률은 6년 내 최저치인 2.4%를 기록

- 몽골은 1990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을 경험하며 2011~13년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을 기록
- 2015년 원자재 가격 하락,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둔화 등 외부환경 악화와 큰 폭의 투자 감소(-38.1%)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전년도 대비 5.7%p 둔화
 - 민간소비는 7.8% 증가했으나 정부 지출은 7.8% 감소
 - 수입과 수출 모두 감소세로 수입은 전년 대비 29.2% 감소한 50억 달러, 수출은 17.4% 감소한 53억 달러 기록
- 인구는 총 3백만 명으로 구매력기준(PPP) 1인당 GDP는 약 1만 2천 달러
 -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전체의 67.7%를 차지하며 도시화율은 72.0%에 달함

◎ 2016년에는 오유 톨고이(Oyu Tolgoi) 광산 개발에 힘입어 투자가 다시 증가세로 반등할 전망

- 오유 톨고이 광산은 고비 사막에 위치한 구리·금 광산으로 약 44억 달러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될 계획
 - 이로 인해 올 하반기부터 투자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며 건설 산업 활성화, 자본재 수입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됨
- 장기적으로는 오유 톨고이 광산 완전 가동 시 GDP의 1/3에 달하는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됨

몽골 주요 경제지표 및 전망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명목 GDP(십억 달러)	7.2	10.4	11.8	12.6	12.3	11.7	12.0	12.9	14.6	17.0	19.3
경제성장률	6.5	17.5	12.5	11.6	8.1	2.4	1.5	4.2	8.4	11.5	9.3
1인당 GDP(PPP)	7,437	8,802	9,880	11,045	11,919	12,268	12,671	13,167	14,061	15,083	16,570
민간소비 증가율	11.0	15.8	13.0	15.4	6.3	7.8	6.0	6.3	7.0	6.9	6.5
정부지출 증가율	13.4	15.3	19.9	15.8	12.2	-7.8	6.0	6.0	6.0	6.0	6.0
고정자본 형성률	33.0	66.2	14.7	-7.2	-21.7	-38.1	3.0	6.0	9.5	9.5	8.0
수출(십억 달러)	3.4	5.5	5.4	4.9	6.4	5.3	5.4	5.9	6.8	8.1	9.5
수출 증가율	46.9	63.2	-2.3	-8.4	30.7	-17.4	2.3	8.5	15.0	19.8	16.9
수입(십억 달러)	4.1	7.8	8.1	7.7	7.0	5.0	5.4	6.0	6.7	7.5	8.4
수입 증가율	55.8	90.5	4.5	-4.5	-9.6	-29.2	8.3	11.1	12.4	12.0	12.2
소비자물가 상승률	10.1	9.2	14.3	10.5	12.9	6.6	4.0	5.8	6.5	6.8	7.0
인구(백만 명)	2.7	2.8	2.8	2.9	2.9	3.0	3.0	3.1	3.1	3.1	3.2
생산가능인구 비중	69.2	69.0	68.8	68.5	68.1	67.7	67.3	66.8	66.5	66.2	65.9
도시화율	67.6	68.5	69.4	70.3	71.1	72.0	72.8	73.5	74.2	74.9	7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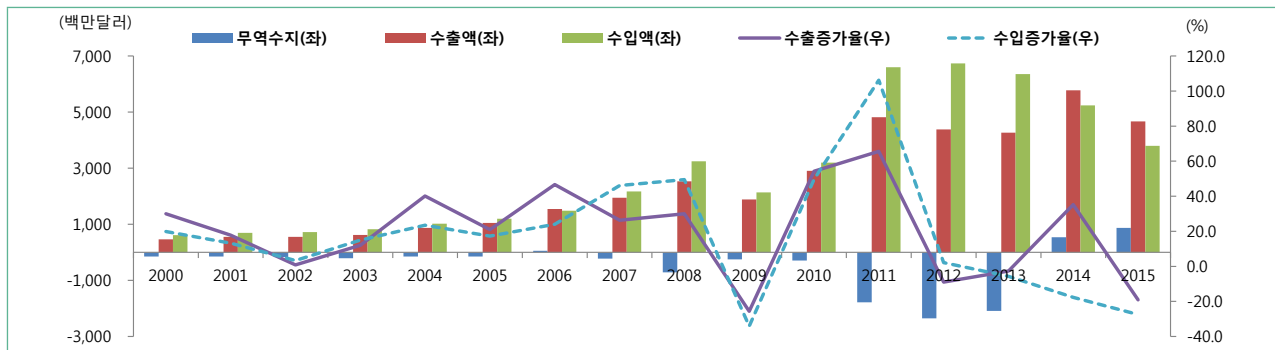
주 : *는 전망치

자료 : IMF, World Bank, UN, 몽골 중앙은행, BMI

02. 몽골의 교역 및 투자 동향

◎ 2015년 몽골의 수출은 47억 달러, 수입은 38억 달러로 총 9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몽골의 수출입 추이



자료 : CEIC

◎ 몽골의 1위 교역 국가는 중국으로 수출, 수입에서 각각 83.7%, 36.6%를 차지

- 한국으로의 수출은 6,700만 달러로 5위에 올랐으며, 수입은 총 2억 6천만 달러로 4위를 기록함

몽골의 주요 수출입 대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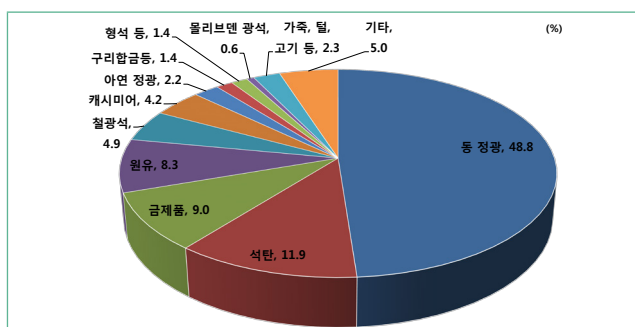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

수출					순위	수입				
국가	2014	(비중)	2015	(비중)		국가	2014	(비중)	2015	(비중)
중국	5,073	(87.8)	3,910	(83.7)	1	중국	1,765	(33.7)	1,390	(36.6)
영국	399	(6.9)	338	(7.2)	2	러시아	1,549	(29.6)	1,021	(26.9)
스위스	28	(0.5)	109	(2.3)	3	일본	368	(7.0)	275	(7.2)
러시아	62	(1.1)	77	(1.6)	4	한국	353	(6.7)	259	(6.8)
한국	13	(0.2)	67	(1.4)	5	독일	159	(3.0)	124	(3.3)
이탈리아	51	(0.9)	40	(0.9)	6	미국	229	(4.4)	116	(3.1)
싱가포르	14	(0.2)	27	(0.6)	7	폴란드	52	(1.0)	40	(1.0)
일본	26	(0.5)	20	(0.4)	8	말레이시아	63	(1.2)	39	(1.0)
미국	15	(0.3)	19	(0.4)	9	우크라이나	70	(1.3)	37	(1.0)
UAE	20	(0.4)	15	(0.3)	10	태국	45	(0.9)	34	(0.9)
총계	5,073		3,910			총계	5,237		3,7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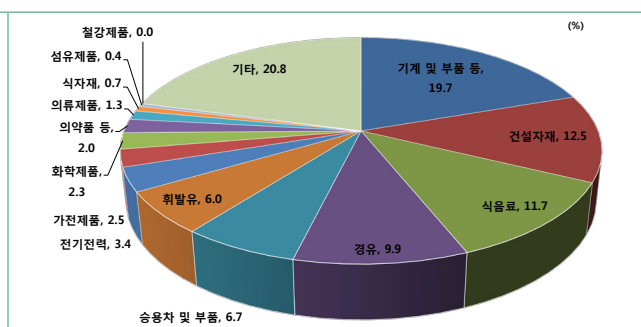
자료 : CEIC

◎ 몽골의 주요 수출품은 동 정광으로 전체 수출의 4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기계 및 부품과 건설자재가 각각 19.7%, 12.5%를 차지

2015년 몽골의 주요품목 수출 비중



2015년 몽골의 주요품목 수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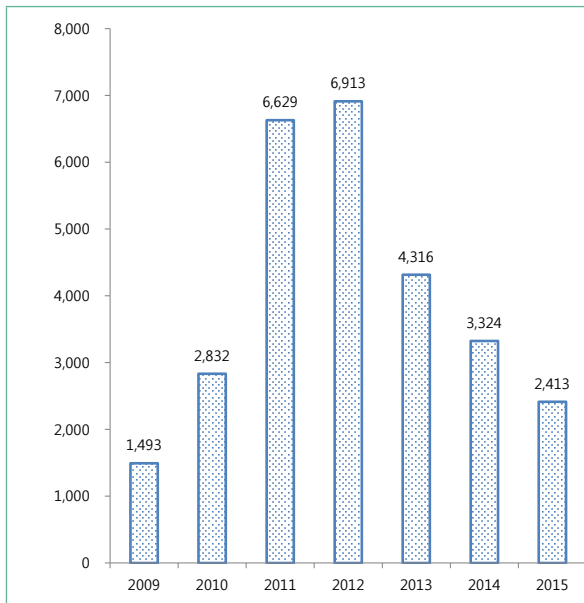
자료 : CEIC

● 몽골의 자국내 투자는 2012년 69억 달러를 정점으로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에는 24억 달러를 기록

- 몽골은 광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광산업의 투자 비중이 19.0%(2015년 기준)로 가장 높음
- 그 뒤를 이어 건설업, 도소매업 등이 각각 16.7%,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전체 투자의 7.6%에 불과

몽골의 투자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몽골의 산업별 투자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산업	2014	(비중)	2015	(비중)
광산업	505	(15.2)	459	(19.0)
건설업	604	(18.2)	403	(16.7)
도소매업	459	(13.8)	282	(11.7)
제조업	230	(6.9)	183	(7.6)
공공서비스업	235	(7.1)	174	(7.2)
의료산업	108	(3.2)	172	(7.1)
에너지업	171	(5.1)	146	(6.0)
정보산업	150	(4.5)	125	(5.2)
교육업	198	(5.9)	95	(3.9)
금융업	226	(6.8)	76	(3.2)
운수창고업	196	(5.9)	57	(2.4)
농수산업	49	(1.5)	40	(1.6)
식숙박업	40	(1.2)	26	(1.1)
부동산업	65	(2.0)	21	(0.9)
기타	87	(2.6)	155	(6.4)
총계	3,324		2,413	

자료 : CEIC

●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집중되는 분야는 자원개발 등을 위한 지질탐사이며, 2013년 기준 전체 투자액의 71.5%를 차지

- 몽골 자원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네덜란드, 호주, 중국 등의 대몽골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네덜란드는 전체 투자의 70.8%(2013년)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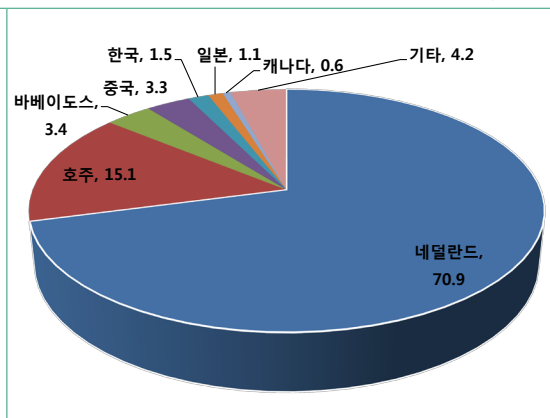
몽골의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단위 : 천 달러, %)

산업	2012	(비중)	2013	(비중)	2014	(비중)
지질탐사 등	2,217,907	(69.3)	871,788	(71.5)	-	-
도소매업 등	694,336	(21.7)	309,030	(25.4)	260	(44.2)
건설업 등	47,615	(1.5)	2,777	(0.2)	171	(29.1)
금융업 등	27,894	(0.9)	17,908	(1.5)	122	(20.7)
수송업	135,063	(4.2)	6,219	(0.5)	-	-
식품가공	21,428	(0.7)	-	-	-	-
관광업	12,458	(0.4)	175	(0.0)	-	-
기타	42,030	(1.3)	11,152	(0.9)	36	(6.0)
총계	3,198,731		1,219,049		589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2013년)

(단위 : %)



자료 : CEIC

03. 한-몽골의 무역 및 투자 동향

◎ (일반) 한국은 몽골의 체제전환과 대외개방 직후 최초로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이며 1990년 수교 이래 2011년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며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옴

- 몽골은 전통적으로 한국을 ‘솔롱고스(무지개 또는 어머니)의 나라’로 부르며 정서적 친밀감을 갖고 있는 한편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예속을 경계하는 측면에서 한국과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요구되는 상황

- 한국 또한 몽골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경제협력 로드맵’ 관련 주요 협력 대상국의 하나이고 양국간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높으므로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으나 아직 그 협력 수준이 낮은 상태

- 한국이 맺은 ‘포괄적 동반자 관계’는 중국, 러시아, 일본이 몽골과 맺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이며 실제 한국-몽골간 교역, 투자 규모도 중국과 일본보다 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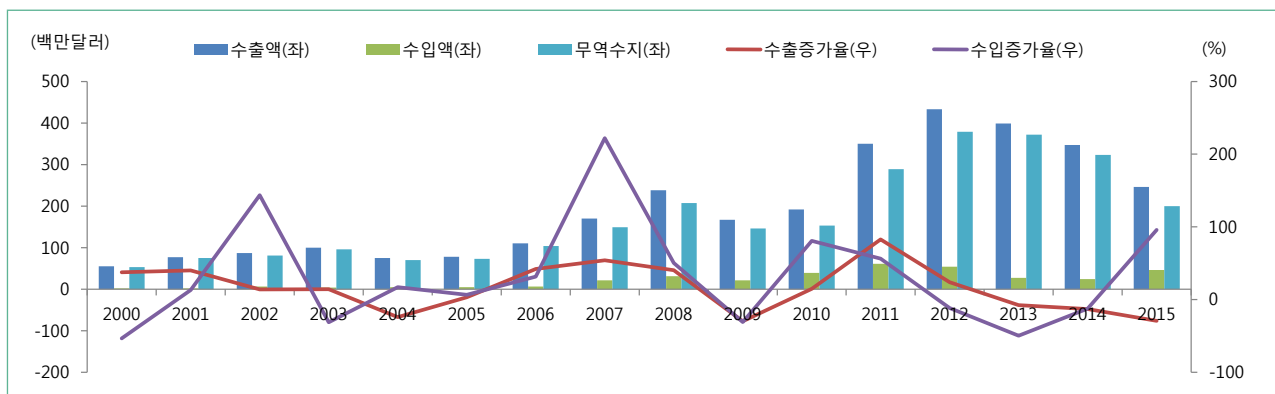
- 한편 세계 10대 광물자원 부국인 몽골과 자원 개발 및 정제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에너지·광물자원 개발 협력이 가능하며,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 교통망의 중심에 위치한 몽골은 한국의 유라시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실현을 위해 협력 필요

◎ (수출입) 한-몽골 교역규모는 1990년 271만 달러에서 2015년 2억 9,200만 달러로 급증했으며, 몽골은 한국의 94위 무역대상국에 위치

- 2015년 한국의 대몽골 수출은 전년 대비 29.2% 감소한 2억 4,500만 달러이며, 주요 품목은 자동차(화물자동차, 1500cc 이상 승용차 등), 기호식품(담배), 석유제품(윤활유) 등임

- 수입은 전년 대비 95.8% 증가한 4,600만 달러로 구리 등 광물자원 수입이 전체 수입의 약 90%를 차지

몽골의 對한국 수출입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서비스(K-stat)

한국의 對몽골 10대 수출입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	수출		순위	품목	수입	
	2014	2015			2014	201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자동차	45 (13.0)	37 (15.0)	1	동제품	1 (4.2)	22 (47.8)
기호식품	22 (6.3)	20 (8.1)	2	기타금속광물	12 (50.0)	13 (28.3)
석유제품	37 (10.7)	14 (5.7)	3	기타비금속광물	5 (20.8)	6 (13.0)
화장품등	14 (4.0)	12 (4.9)	4	의류	1 (4.2)	1 (2.2)
알루미늄	4 (1.2)	8 (3.3)	5	건설광산기계	0.1 (0.4)	1 (2.2)
전자응용기기	9 (2.6)	8 (3.3)	6	레일·철구조물	- -	0.5 (1.0)
플라스틱제품	10 (2.9)	7 (2.8)	7	기타 농산물	0.3 (1.5)	0.3 (0.7)
레일·철구조물	16 (4.6)	6 (2.4)	8	축산 가공품	0.2 (1.0)	0.3 (0.7)
종이제품	7 (2.0)	6 (2.4)	9	운반하역기계	- -	0.3 (0.6)
건설광산기계	22 (6.3)	6 (2.4)	10	기타섬유제품	0.1 (0.4)	0.2 (0.5)
총계	347 (100.0)	246 (100.0)		총계	24 (100.0)	46 (100.0)

주 : MTI 3단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서비스(K-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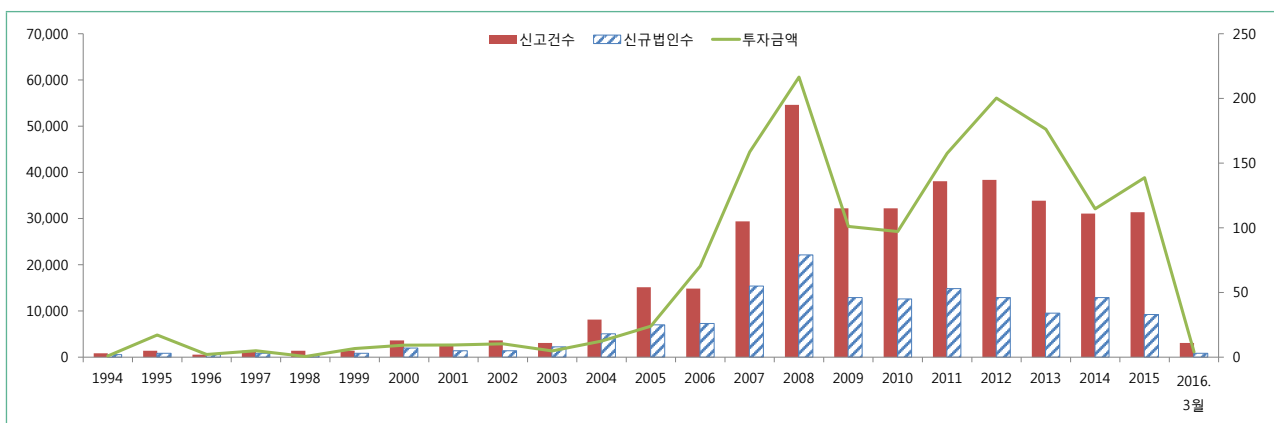
● (투자) 2015년까지 한국의 대몽골 누적투자액은 약 4.3억 달러로 545개 법인이 현지 진출

- 한국의 대몽골 직접 투자는 1994년에 시작돼 투자규모가 연간 500만 달러 이하에 머물렀으나 2005년 이후 빠르게 늘어 2008년 약 6,100만 달러를 정점으로 감소세에 있음
- 한국의 주요 투자 분야는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등임
 - 2015년 누적 투자금액 기준으로 광업이 1억 1,700만 달러로 27.4%를 차지했으며 도매 및 소매업 7,300만 달러(17.1%), 부동산업 5,200만 달러(12.1%) 등의 순
 - 2015년 당해연도 기준으로 광업이 1,135만 달러(29.2%)로 투자가 가장 많았으며, 부동산업이 1,030만 달러(26.5%)로 확대되며 2위 투자분야로 등극

한국의 對몽골 직접 투자 현황

(천 달러)

(건)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한국의 對몽골 업종별 직접 투자 현황

(단위 : 천 달러, 건)

업종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15년	'15년 누적	'15년	'15년 누적	'15년	'15년 누적	'15년	'15년 누적
건설업	12	154	6	71	2,807	94,093	1,907	54,790
공공행정 및 국방	1	3	1	3	100	400	100	130
광업	16	254	3	48	23,924	282,502	11,350	117,600
교육서비스	2	6	2	4	200	370	200	370
금융 및 보험	3	14	0	7	506	2,034	506	1,865
농림어업	9	52	2	13	520	9,282	520	4,695
도매 및 소매	27	288	7	135	8,159	131,989	6,475	73,603
보건 및 사회복지	2	24	0	8	1,332	34,666	1,592	20,105
부동산 및 임대	10	137	1	43	11,675	100,114	10,306	52,064
사업지원 서비스	1	40	1	20	4	20,114	4	12,305
숙박 및 음식점	3	18	2	13	300	9,757	300	7,444
스포츠·여가서비스		6		5		1,520		750
운수업	6	41	2	15	2,598	17,680	1,799	12,977
전기, 가스, 수도	5	10	2	6	2,370	3,000	450	880
과학 및 전문기술	4	83	0	40	450	21,786	462	16,905
제조업	9	149	3	85	26,070	63,104	1,386	21,729
정보서비스	2	49	1	17	2,400	42,659	1,480	27,433
하수·폐기물 처리		6		1		4,591		2,981
협회 및 기타서비스		20		11		2,673		676
총계	112	1,354	33	545	83,415	842,334	38,837	429,301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한류 및 한국어 관심) 최근 일부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가 정규 수업과목으로 도입되었으며, 2006년 드라마 ‘대장금’ 방영 이후 생성된 한류에 힘입어 한국식당 방문 및 한국제품 구매까지로 연결

- 현재 한국어가 정규 과목으로 개설된 초·중·고등학교는 8개(수강생 1,877명)이며, 주요 대학내 한국어 전공자는 약 2,200여 명에 달함¹⁾
- 몽골에서 한류 열풍은 2013년 최고조에 달했으며, 현지 포털에 한국 드라마가 과도하게 방영 되는 것에 대해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인기를 끈 바 있음
 - 1990년대 후반부터 ‘모래시계’, ‘겨울연가’, ‘대장금’ 등이 인기리에 방송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K-Pop이 주축이 되어 한류를 이어감
- 한편 울란바타르 소재 70여 개 한식당 방문 고객의 80% 이상이 몽골인이며 최근 한국 맥주와 화장품 등 한국 상품 구매가 늘고 한국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도 진출 예정
 - 몽골 소비자들 사이에서 OB社의 카스맥주는 고급형 맥주로 인식되며 최근 현지 프리미엄 맥주 시장의 약 40%를 차지²⁾
 - 올해 6월에는 뚜레쥬르가 몽골 현지 기업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협약을 체결³⁾

1)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15. 9

2) 한국경제, ‘몽골서 부는 ‘맥주 한류’...카스, 고급맥주 1위’(2015. 7. 10.)

3) 매일경제, ‘뚜레쥬르, 국내 베이커리 업계 최초 ‘몽골 진출’(2016. 5. 12.)

04. 결론 및 시사점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경제협력 강화 필요

- 몽골은 유럽과 동아시아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등 주요 국가들도 몽골의 지리적 이점을 높이 평가해 앞다투어 경제 협력을 추진 중
-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몽골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한국-몽골 FTA 추진도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됨
 - 한-몽골 FTA는 2008년 민간공동연구 개시 합의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이, 일본과 몽골은 3년간의 협상 끝에 일-몽골 FTA(몽골의 최초 FTA)를 올해 6월 7일에 발효함

◎ 도시 및 교통 인프라 개발 분야에 투자 유망

- 몽골의 도시화율은 2010년 67.6%에서 2015년 72.0%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도시화율은 75.6%에 달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주택, 전력, 통신인프라 등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 현재 몽골의 미비한 철도 및 도로 등 수송 인프라가 광업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자원개발에 필요한 교통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

◎ 한류 문화콘텐츠 확산을 계기로 소비재 수출 및 서비스 산업 진출 확대 가능

- 몽골의 구매력기준(PPP) 1인당 GDP는 약 1만2천 달러로 주요 동남아 국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소비재 수출 가능
 - * 구매력기준(PPP) 1인당 GDP(IMF) : 인도네시아(1만 1,120 달러), 필리핀(7,318 달러), 베트남(6,019 달러)
- 몽골에서 한류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관련 서비스 산업의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문의 국제무역연구원 전략시장연구실 수석연구원 박진우 (02-6000-5188, jinwoo84@kita.net)
수석연구원 이은미 (02-6000-5179, eunmilee@kita.net)
연구원 유승진 (02-6000-5455, esjay@kita.net)